

# 지방소멸 위기 대응 '기본 소득 정책 마련' 연구 나선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광주·전남·전북연구원과 협약 체결 서남권 메가시티·신재생 에너지 공동체 구축 등 협력연구 확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광주·전남·전북연구원 등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을 위해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이들 연구원은 지난 30일 오후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4개 연구기관 원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발전과 도시-농촌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의 공동개발과 실행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4개 기관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 마련'을 목표로 삼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사회 정책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과 도입 공동연구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했고, 내년부터 출생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본소득의 노후우를 바탕으로 호남지역의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호남권 연구기관(전남·전북·광주)과의 기본소득 정책화 준비는 현실적인 정책 도입 가능성을 높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공동연구 협력을 시작으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공동체 구축, 남부경제권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연구를 확대, 서남권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농촌 지역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어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혁신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정책혁신 선도 연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발과 실행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4개 기관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 마련'을 목표로 삼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사회 정책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과 도입 공동연구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했고, 내년부터 출생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본소득의 노후우를 바탕으로 호남지역의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호남권 연구기관(전남·전북·광주)과의 기본소득 정책화 준비는 현실적인 정책 도입 가능성을 높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공동연구 협력을 시작으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공동체 구축, 남부경제권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연구를 확대, 서남권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농촌 지역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어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혁신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정책혁신 선도 연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70kV급 신송전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추진

### '기술개발·실증' 기획위 출범...기차재 개발 등 글로벌 시장 선도 목표

전남도가 지난 30일 나주시청에서 '분산에너지 특화 70kV급 신송전 전력기차재 평가 기술개발 및 실증' 기획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70kV급 신송전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70kV급 신송전 시스템은 기존의 송-배전망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압 기준이다. 기존 154kV 송전망과 22.9kV 배전망은 각각 100MW이상의 대용량 전력 송전과 20MW 이하의 소규모 전력 배전에 적합하다. 자주 사용되는 중간 전력 용량의 송-배전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40MW-100MW 수준의 전력 송전에는 70kV급 신송전 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30년간 60MW의 전력을 10km 거리에 송전할 경우, 70kV급의 총비용은 199억원으로 154kV의 244억원과 22.9kV의 227억원보다 경제적이다.

전남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70kV급 신송전 전력기차재의 개발과 기술 안정성 검증을 실시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70kV급 복합 전력기차재 및 운영기술 개발, 단락시험, 내진시험, 고압시험 등 80여 종의 시험설비 구축이 포함된다.

이날 출범한 기획위원회는 전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KTC, KETI, 녹색에너지연구원, 목포대학교, LS일렉트릭, 인택전자 등 산·학·연·관 12개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70kV급 전력기차재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과 연구방향을 설정한다. 산업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기획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강창구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분산에너지에 특화된 70kV급 신송전 시스템은 국가 전력 인프라의 미래를 여는 차세대 에너지 고속도로"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도의 에너지 수도로서

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0kV급 신송전 시스템은 직류(DC)시장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고,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큰 활약이 기대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66kV, 69kV의 중간전압 송전체계를 이미 운영 중이다. 한전도 차세대 직류 송배전체계의 기존 전압을 중간전압 직류(MVDC) 70kV(±35kV)로 설정했다. 이를 교류로 변환하면 70kV가 돼 교류와 직류 간 송배전이 용이하다. 70kV급 신송전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2023년)에서 12개 이상의 70kV급 신송전 선로를 2032년까지 준공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약 3000억 원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약 7000억 원 규모의 70kV급 전력기차재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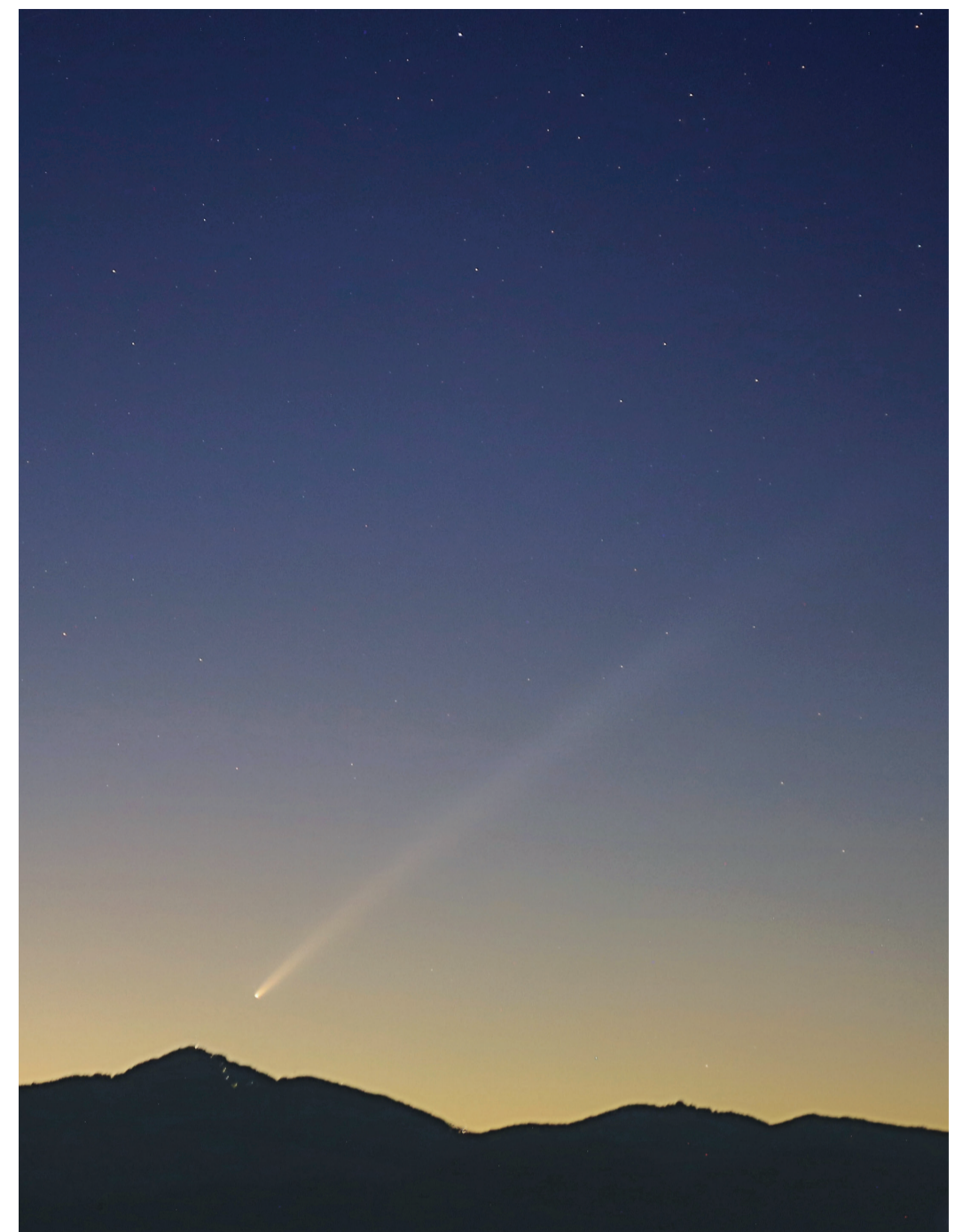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0kV급 신송전 시스템은 직류(DC)시장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고,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큰 활약이 기대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66kV, 69kV의 중간전압 송전체계를 이미 운영 중이다. 한전도 차세대 직류 송배전체계의 기존 전압을 중간전압 직류(MVDC) 70kV(±35kV)로 설정했다. 이를 교류로 변환하면 70kV가 돼 교류와 직류 간 송배전이 용이하다. 70kV급 신송전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제10차 송변전설비계획(2023년)에서 12개 이상의 70kV급 신송전 선로를 2032년까지 준공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약 3000억 원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약 7000억 원 규모의 70kV급 전력기차재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리산 천왕봉 위에 뜬 '뜨진산·아틀라스 혜성' 최근 태양에 가장 가까운 근일점(近日點)을 통과한 '뜨진산(紫金山)·아틀라스 혜성(C/2023 A3)이 지난 30일 새벽 5시 40분께 지리산 천왕봉 너머에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혜성 밝기는 3등급 전후로, 태양을 무사히 돌아오는 12일 이후에는 초저녁 서쪽 하늘 지평선 부근에서 쌍안경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지리산 정령치=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광주시, '외국인주민 친화병원' 20곳 지정

###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3개 언어권 의료 통역 활동 지원

광주시는 "외국인주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외국인주민 친화병원' 20곳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통역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정 진료 및 합리적 비용을 제공하는 등 지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20곳을 최종 선정하고, 광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선정된 외국인주민 친화병원은 ▲백련스의원 ▲첨단우리병원 ▲사랑샘병원 ▲신가병원 ▲파광 새안과의원 ▲광산수원미래아동병원 ▲한사랑병원 ▲행복을주는가정의학과의원 ▲아이안과의원 ▲광주센트럴병원 ▲밝은안과21병원 ▲더불어유성병원 ▲서광병원 ▲진요양병원 ▲명인지과병원 ▲슬기로운재활의학과병원 ▲신세계안과의원 ▲동명병원이다.

시는 '외국인주민 친화병원'에 대해 친화병원

현판·지정서 제공, 광주시 누리집 등을 통한 의료 기관 홍보, 2024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근로자 대상 의료비 일부 지원 연계,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13개 언어권 의료 통역 활동이 무료 파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외국인주민 친화병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와 '포용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현판·지정서 제공, 광주시 누리집 등을 통한 의료 기관 홍보, 2024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근로자 대상 의료비 일부 지원 연계,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13개 언어권 의료 통역 활동이 무료 파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외국인주민 친화병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와 '포용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이병철 신임 기획조정실장 임명

광주시는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병철(사진)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이병철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나주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전담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기획재정담당관을 역임하는 등 기획예산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행정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이 신임 기획조정실장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민·군공합 통합 이전,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등 민선8기 후반기 핵심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1년 8개월 광주시장에 기여한 배일권 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는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병철(사진)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이병철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나주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전담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기획재정담당관을 역임하는 등 기획예산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행정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이 신임 기획조정실장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민·군공합 통합 이전,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등 민선8기 후반기 핵심현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1년 8개월 광주시장에 기여한 배일권 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박진표 기자 lucky@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9. 9(월) ~ 13(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 단 위	수 시	정 시
인문 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 범	유아교육과	8	2
예 능	음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4. 9. 9(월) ~ 13(금) · 전 형 일: 2024. 10. 7(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 형 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http://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